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1. 11.(금) 조간 2022. 11. 10.(목) 11:00	배포 일시	2022. 11. 10.(목) 06:00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석훈 (044-200-5740)
		담당자	사무관 윤현석 (044-200-5741)

2022년 제4회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

- 응시자 간 거리두기, 사전방역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이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11월 12일(토) 부산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2022년도 '제4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총 2만 2천여 명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렀으며,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응시인원 1만 8천여 명이 해기사 정기시험 3차례와 상시시험을 안전하게 치른 바 있다.

이번 2022년도 제4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 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천 1백 여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키고 좌석 한 칸을 비워서 응시생 간의 거리도 확보하여 응시생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또한, 안전한 시험 진행을 최우선 목표로 사전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응시를 제한하고, 시험 전일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아울러, 시험 당일 현장에서의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응시생은 응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10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방역점검 담당관을 지정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 소방서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10개 시·도 및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라며,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4회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 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연말까지 6백여 명 규모의 소규모 상시시험을 4차례 더 시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참 고 | **2022년도 제3회 해기사 정기시험(2022. 8. 27) 사진**

입장 전 발열체크

방역소독

시험응시